



CHANEL, BIC의 전화를 건 여자

전화가 울렸다.

국가 번호는 +33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프랑스였다.

내가 몰랐던 것은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끝맺지 못한 연애를 뒤에 남겨 둔 적이 없었다. 그것은 Gillette 남자로서의 내 방식이 결코 아니었다. 프랑스 여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그녀들을 기다리게 둘 수는 결코 없었다. 나는 언제나 그녀들의 계획을 따랐다. 고객을 먼저 욕망에서, 그다음 필요에서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언제나 어머니 Gillette의 규칙이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Claude Chiracac이고, Intermediary Operation in the World의 매니저입니다. GILLETTENARRATIVE의 소유주이신 Ferdinando Frega 씨 맞으십니까?”

“네, 접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 주시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요즘은 흔한 대답이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뵙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숙녀분, 저는 첫째로 은퇴했고 둘째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는 언제나 반겨 왔지요. 새로운 일에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제안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임시 계약 정도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rega 씨. Claude Chiracac은 제 업무상 이름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Chanel이라고 불러요. 원하시면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저는 프랑스의 한 대형 다국적 기업 경영진으로부터 귀하께 연락해 귀하의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을 마무리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귀하가 그들의 공식 연락 상대입니다. 시간을 조금 내어 주신다면, 찾아뵙고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원하실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만남이 얼마나 걸릴지 대략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가서 오후 7시 30분까지 머무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몇 마디만으로도 벌써 흥미로운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웹사이트의 사진도 그 인상을 확인해 주네요. 지적일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도 하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Chanel, 오랜 세월 명예롭게 봉직한 끝에, 이탈리아 외무부는 제가 세계의 여성들을 대한 방식에 대해 표창 메달을 주었습니다. 유일한 비극은, 거의 모든 여성과의 자연스러운 결말이 결혼이었으리라는 것이었지요 — 그리고 그것은 제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Frega 씨. 내일 뵙겠습니다. 레조칼라브리아 Sheraton 호텔, 오후 2시 30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지요.”

Ferdinando